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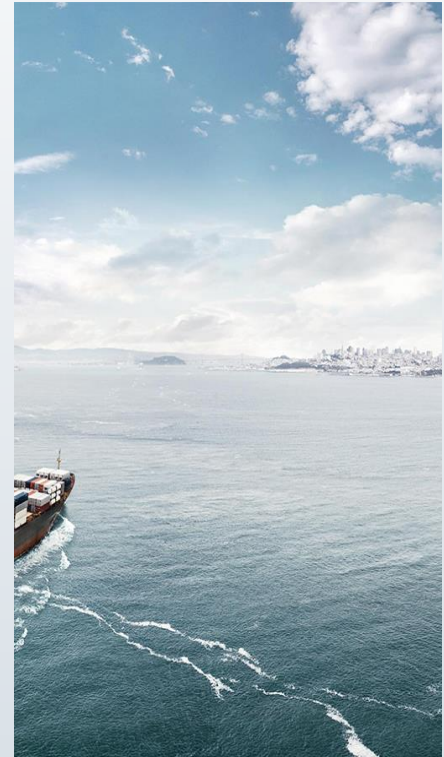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18

Updated October 02,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9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SK 그룹, SK 해운 매각나서

SK 그룹이 해운업에서 36 년 만에 철수할 준비를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 그룹은 SK 해운을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앤컴퍼니는 SK 해운이 발행할 신주를 사들이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신주 발행 규모는 1 조 5000 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한앤컴퍼니는 SK 해운의 지분을 최대 90% 가까이 확보하면서 기존 최대주주인 SK㈜에는 소수 지분만 남게 된다. 매각이 완료되면 SK 그룹이 1982 년 유공해운을 설립하며 해운업을 시작한 지 36 년 만에 물러나게 되는 셈이다.

■ SK 해운, 업계 불황에 실적악화

SK 해운은 SK 그룹 차원에서 관리에 들어갔음에도 업계 불황으로 좀처럼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SK 그룹이 1980 년 인수한 대한석유공사에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공해운은 2000 년대 초중반까지 해운업 호황을 거치며 꾸준히 성장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 팬오션에 이어 국내 4 위 해운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자본잠식에 빠지게 됐다. 이에 SK 그룹은 SK 해운이 선박을 도입할 때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SK 해운을 지원해왔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4 월 존속법인과 우량자산을 보유한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면서 선박 10 척을 매각하고, 적자 장기용선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SK 해운은 벌크선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대신 SK 그룹 계열사 물량인 석유와 가스 운송을 위한 탱커선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룹 의존도를 높여서라도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적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 해운의 올해 기준 상반기 매출 8,040 억원, 영업이익 477 억원의 실적을 거뒀으나, 금융비용 부담 탓에 결과적으로 200 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391%에 이른다. 차입금은 4 조 4,000 억원에 달하며, 이 중 1 조원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갚아야한다. 차입금 규모가 축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SK 해운의 신용등급이 BBB+ 까지 떨어졌다. 덩달아 모회사인 SK㈜의 지원 부담도 커지게 된 셈이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발목...에이치라인해운 합병에 가닥

실적악화 뿐 아니라 SK 해운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권 안에 든 것도 매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I . ISSUE & TREND

공정위는 지난달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뿐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놴다. 이 경우 SK 해운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작년 기준 매출의 34% 수준인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 현재 SK 해운 대주주는 SK㈜로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이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 해운이 한앤컴퍼니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에이치라인해운과 합병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과 장기전용선 중심인 에이치라인해운이 SK 해운과 합병될 경우 LNG 운송과 더불어 원유 및 관련 정제제품 운송까지 발을 넓혀 사업이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北 나진·청진항 해운협력 최적지...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 주목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이후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운항만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한과의 해운 항로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결성 측면에서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9 월호'에서 이성우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은 항만물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항만시설은 1980년대까지는 투자가 진행돼 일부 항만들의 현대화 등이 진행됐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진행되지 못해 시설이 낙후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북한 항만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러시아, 동유럽도 19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그 비중이 감소한데다, 경제 붕괴 및 대북제재로 인해 대외수출입이 급격히 축소돼 북중 국경무역 비중 증가로 육상수송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본부장은 "북한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치중된 경제의존도를 한국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나진항과 청진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향후 남북경제가 연결되고 활성화될 경우 부산항이 허브로, 청진항과 나진항이 보조 허브로서 가능하며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I . ISSUE & TREND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항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항만 중복투자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북한 항만의 개발이 남북 양측만의 관점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서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한 항만을 개발하며 남한이 실기했던 항만시설 과잉이나 편중, 특화전략 실패 등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3. 가깝고도 먼 남북 해운수산협력... 최대 관문은 ‘유엔 대북제재’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후 해양수산 분야 교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시화되면서 공동어로, 해운항로 개설 등이 주요 협력방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양측간 합의만으로는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첫걸음을 떼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 거래를 막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관문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경험의 진행속도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상회담 수행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이같은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김 장관은 27 일 방북이후 소회와 평양공동선언의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분야 협력 관련) 모든 문제의 가장 선행조건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합의다”라며 “그 결과에 따른 유엔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국면에서 북한의 낙후된 항만개발 등에 우리 정부의 정부개발원조(ODA)사업이 거론된 것과 관련 “항만개발이라던지 우리 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유엔제재 대상 걸릴 듯하다. 유엔 제재 이후가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I . ISSUE & TREND

김 장관은 지난 6 월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측 서해 일대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도 "입어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UN 제재 대상인데, 이 문제도 북미관계가 풀리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서해 북방한계선의) 공동어로 수산협력 같은 경우는 우리도 잡아오고, 북한 어선도 와서 잡아갈 수 있도록 주고받는 건 제재대상이 아닐 수 있어 유엔에 심사의뢰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대북제재 변수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혹은 우리 정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경험의 사전작업에 대해선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한강하구 공동사업과 수산자원 공동조사가 그 대상이다. 김 장관은 "수산자원 공동조사의 경우 서해 동해 접경지역 중심으로 먼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남포, 해주항 등의 개발타당성 조사라던지 수심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런지와 관련해 북쪽과 조사선행사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덧붙여 해수부의 남북경협 추진 강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담당관 같이 국장급 직제를 신설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남북대화에 맞춰서 TF 를 운영해왔는데 본격 시행단계에서 확대하고 공식적인 직제도 신설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시켜보겠다"고 밝혔다.

4. 한국만 비껴간 경제혼풍

올해 국제경기 호황 속에 우리 한국만 '나 홀로 후퇴'를 하면서 국제사회 우리 위상이 속속 하락하고 있다. 내년도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게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 일 '2019 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LG 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았다.

국내외 기관들도 속속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ADB(아시아개발은행)는 기존 2.9%에서 2.8%로 1%포인트 내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연 3.0%로 제시했던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다. 애초에 정부가 내세웠던 올해 '3%대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진 틈에 국제 경기는 활황세를 보였다. 이에 우리 한국의 2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6%에 그친 반면, 미국, 중국, 일본은 2 분기에 각각 1.0%, 1.8%, 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I . ISSUE & TREND

우리가 고용참사를 겪는 사이 미국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실업률 격차도 지난 2 분기 우리 한국이 3.8%인데 반해 미국은 3.9%로 0.1%포인트의 격차만 보이는 실정이다.

당장 4 분기 전망도 나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일제히 낮췄다. OECD 도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내렸다. 내년 전망은 2.7%다. 침하한 한국 경제와 달리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 배나 큰 미국은 호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상향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지만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속도, 소비심리 악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전체적인 민간 소비를 제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증가폭이 확대된 -2.7%, 설비투자는 증가세 둔화로 0.4%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기업 부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 확산 우려로 무역수지는 711 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744 억 달러보다 줄어든 수치다. 고용 참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증가수를 12 만 5,000 명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기존 19 만 8,000 명에서 9 만 6,000 명으로 대폭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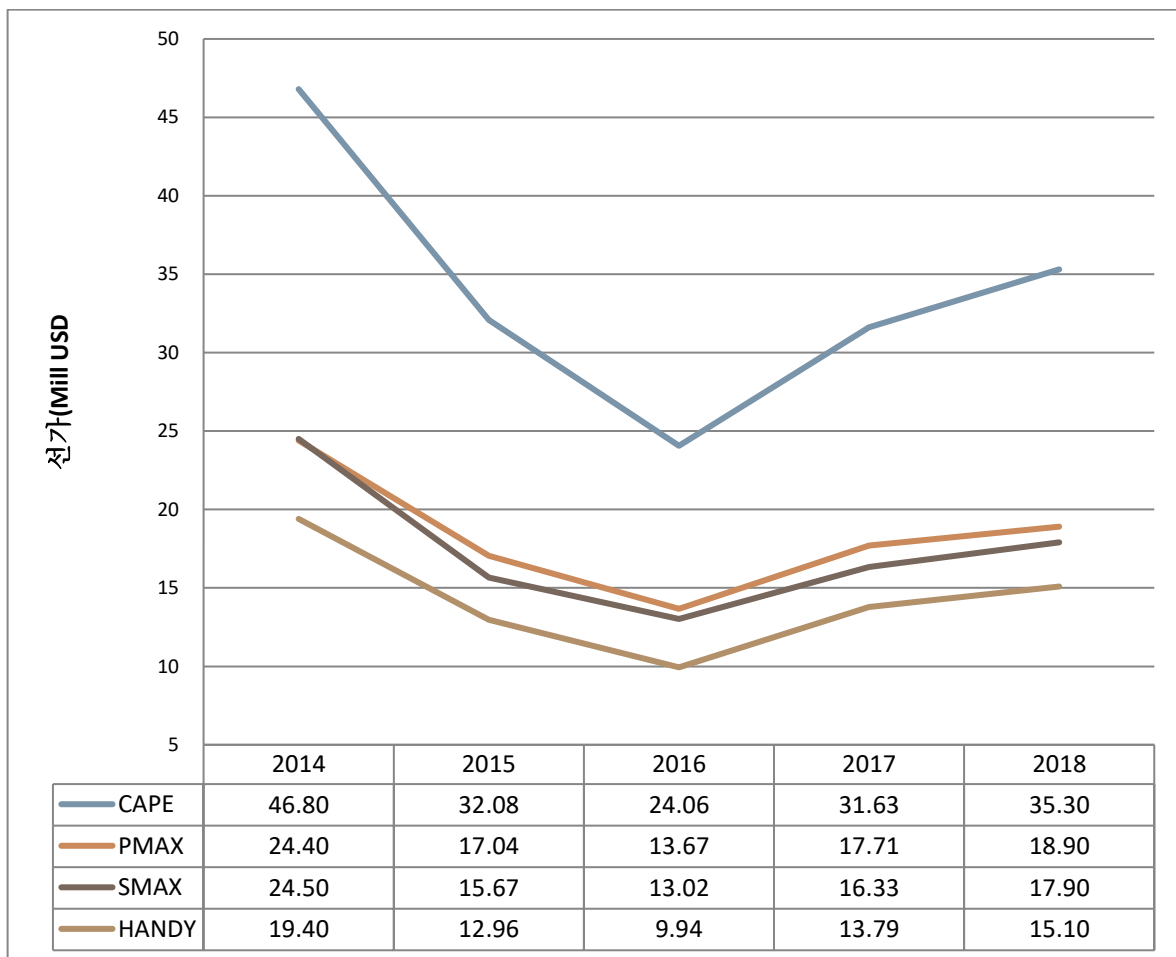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Capesize 180K	46.80	32.08	24.06	31.63	35.30
	28.81%	-31.45%	-24.99%	31.43%	11.62%
Panamax 76K	24.40	17.04	13.67	17.71	18.90
	13.27%	-30.16%	-19.80%	29.57%	6.73%
Supramax 56K	24.50	15.67	13.02	16.33	17.90
	14.84%	-36.04%	-16.91%	25.44%	9.59%
Handysize 32K	19.40	12.96	9.94	13.79	15.10
	9.04%	-33.20%	-23.32%	38.78%	9.49%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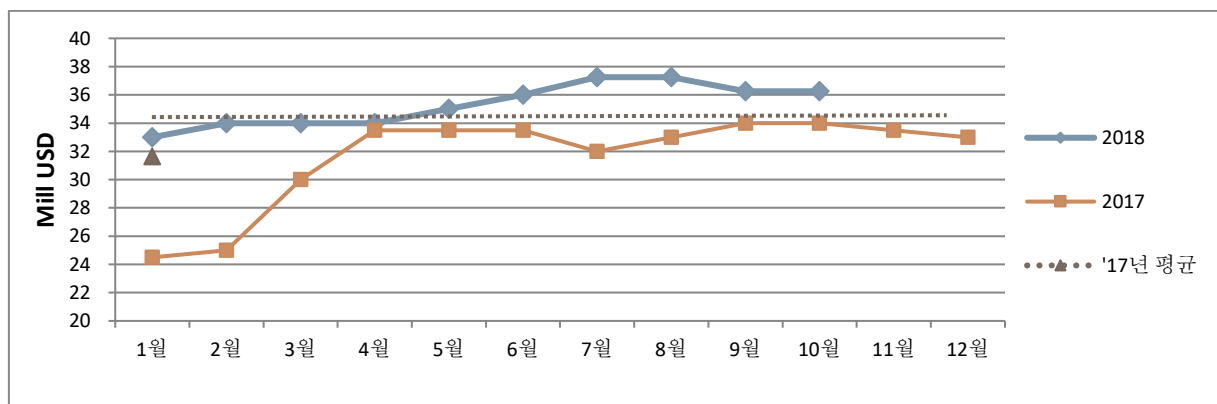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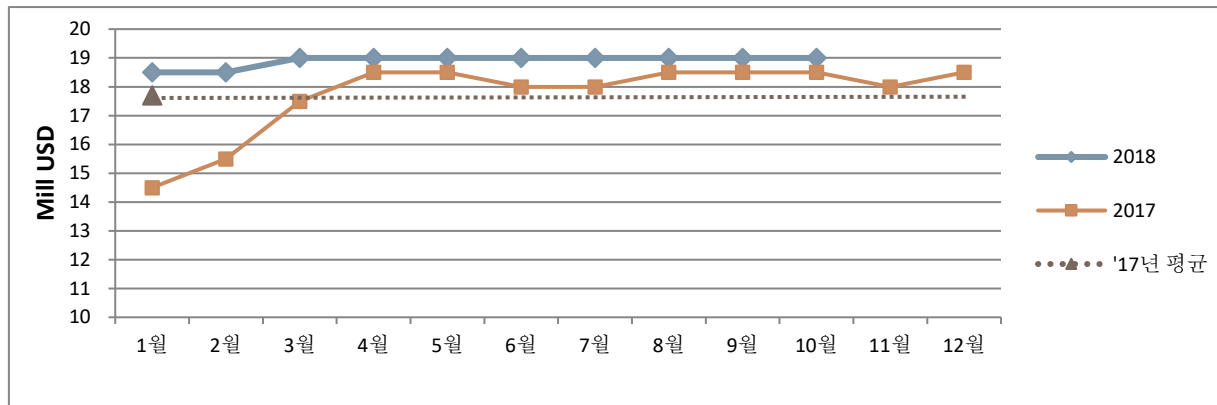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7.25	37.25	36.25	36.25		35.19
		전월대비	0.0%	3.0%	0.0%	0.0%	2.9%	2.9%	3.5%	0.0%	-2.7%	0.0%		-
		전년대비	34.7%	36.0%	13.3%	1.5%	4.5%	7.5%	16.4%	12.9%	6.6%	6.6%		11.3%
	PMAK 76k	선가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89
		전월대비	0.0%	0.0%	2.7%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6%	19.4%	8.6%	2.7%	2.7%	5.6%	5.6%	2.7%	2.7%			6.7%
	SMAK 56k	선가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89
		전월대비	0.0%	0.0%	2.9%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0.7%	16.7%	12.5%	5.9%	5.9%	9.1%	9.1%	10.8%	10.8%			9.5%
	HA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6.00	15.00	15.00			15.11
		전월대비	0.0%	0.0%	7.1%	3.3%	0.0%	3.2%	3.2%	-6.3%	0.0%			-
		전년대비	7.7%	3.7%	11.1%	10.7%	10.7%	14.3%	14.3%	7.1%	7.1%			9.6%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2.00	33.00	34.00			31.63
	PMAK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8.00	18.50	18.50			17.71
	SMAK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00	16.25	16.25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3.79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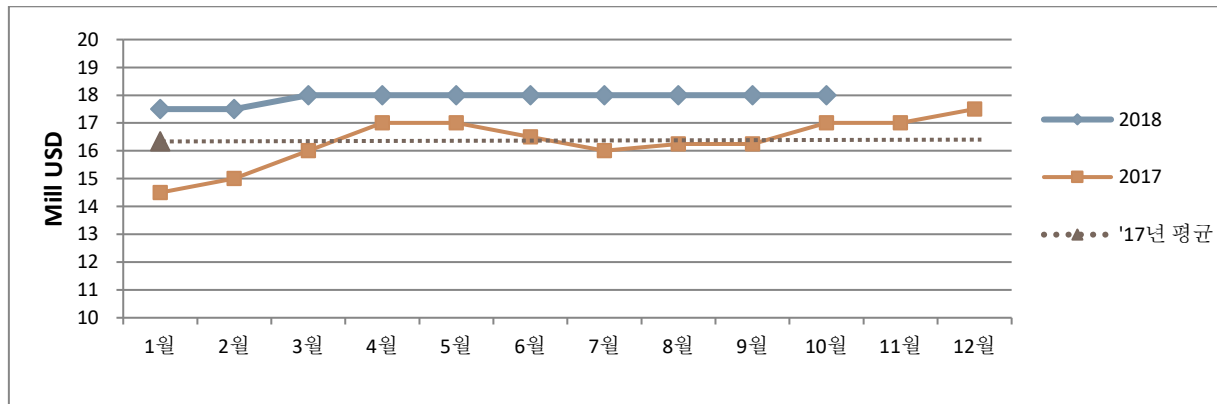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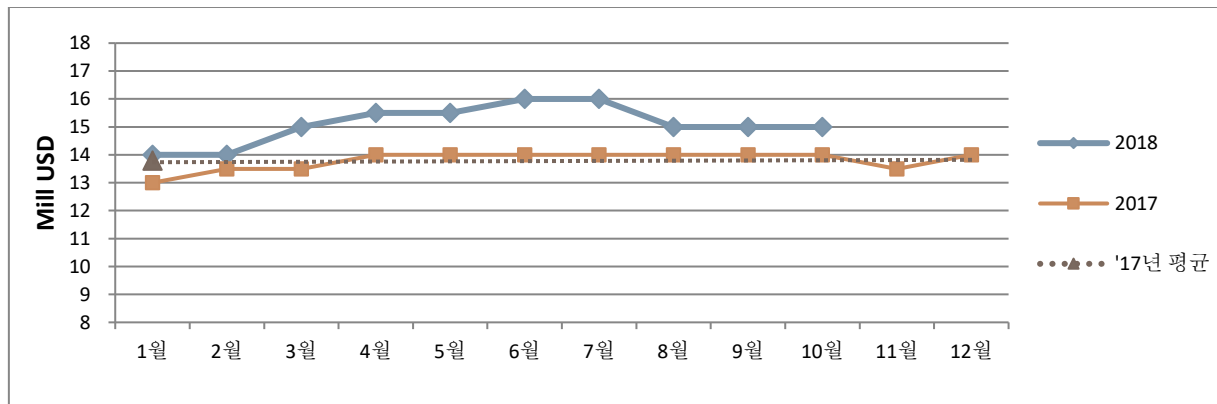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CAPE DOVER	185,805	2006	JAPAN	B&W		22-23	Greek buyers (Bright Navigation)
BC	NEW DALIAN	180,371	2010	CHINA	B&W		27	Greek buyer
BC	TENSHU MARU	179,993	2010	PHILIPPINES(JPN)	B&W		29.5	Singapore buyer
BC	SKY JADE	81,487	2010	JAPAN	B&W		18.5	Chinese buyer
BC	JAG ARYA	80,480	2011	KOREA	B&W		8.7	Greek buyer (Trade Fortune)
BC	ENERGY MIDAS	77,697	1998	JAPAN	B&W		7.5	Chinese buyer
BC	FLIPPER	73,726	1999	JAPAN	SULZ		6.3	Middle Eastern buyer
BC	MAJULAH SINGAPURA	58,500	2014	PHILIPPINES(JPN)	B&W	C 4x30t	19.5	Undisclosed buyer
BC	JPO DORADO	56,819	2009	CHINA	B&W	C 4x35t	9.8	Chinese buyer
BC	JPO DELPHINUS	56,819	2009	CHINA	B&W	C 4x35t	9.8	
BC	TOMINI INFINITY	56,720	2010	CHINA	B&W	C 4x30t	10.3	Undisclosed buyer
BC	BULK ZAMBESI	53,776	2012	CHINA	B&W		xs 50	Indonesian buyer
BC	BULK LIMPOPO	53,776	2012	CHINA	B&W			
BC	PERSUS OCEAN	53,549	2007	JAPAN	B&W	C 4x30.5t	11	undisclosed buyer
BC	EIGEN	50,249	1999	JAPAN	MITSU	C 4x30	6.5-7	Undisclosed buyer
BC	UNICORN OCEAN	38,503	2011	JAPAN	B&W	C 4x30t	12.9	Undisclosed buyer
BC	OCEAN WEALTH	38,243	2012	JAPAN	B&W	4x30.5tc	15	undisclosed buyer
BC	GLOBAL BAY (log)	29,567	2009	JAPAN	B&W	C 4x30.5t	8.2	Undisclosed buyer
BC	SIDER BOSTON (log)	29,084	2011	CHINA	B&W	C 4x30t	10	Greek buyer
BC	VAN IMABARI	28,397	2008	JAPAN	B&W	C 4x30.5t	8.5	Greek buyer

II . BULK CARRIER

BC	OURANIA	27,786	1998	JAPAN	B&W	C 4x30t	5.25	Middle Eastern buyer
BC	MUKARNAS	23,712	1995	JAPAN	B&W	C4x 30t	4	Chinese buyer
GC	WOOYANG ACE	7,351	2007	CHINA	HANS H	D 2x30t, D 2x25t	2.7	Chinese buyers, ss/dd passed Apr '18
BC	UNIRICH (td)	7,069	1994	JAPAN	MAK	D 2x30t, D 2x25t	1.4	Far Eastern buyer
GC	GLORY HARVEST (td)	6,940	2000	JAPAN	B&W	C 1x30t, D 2x25t	2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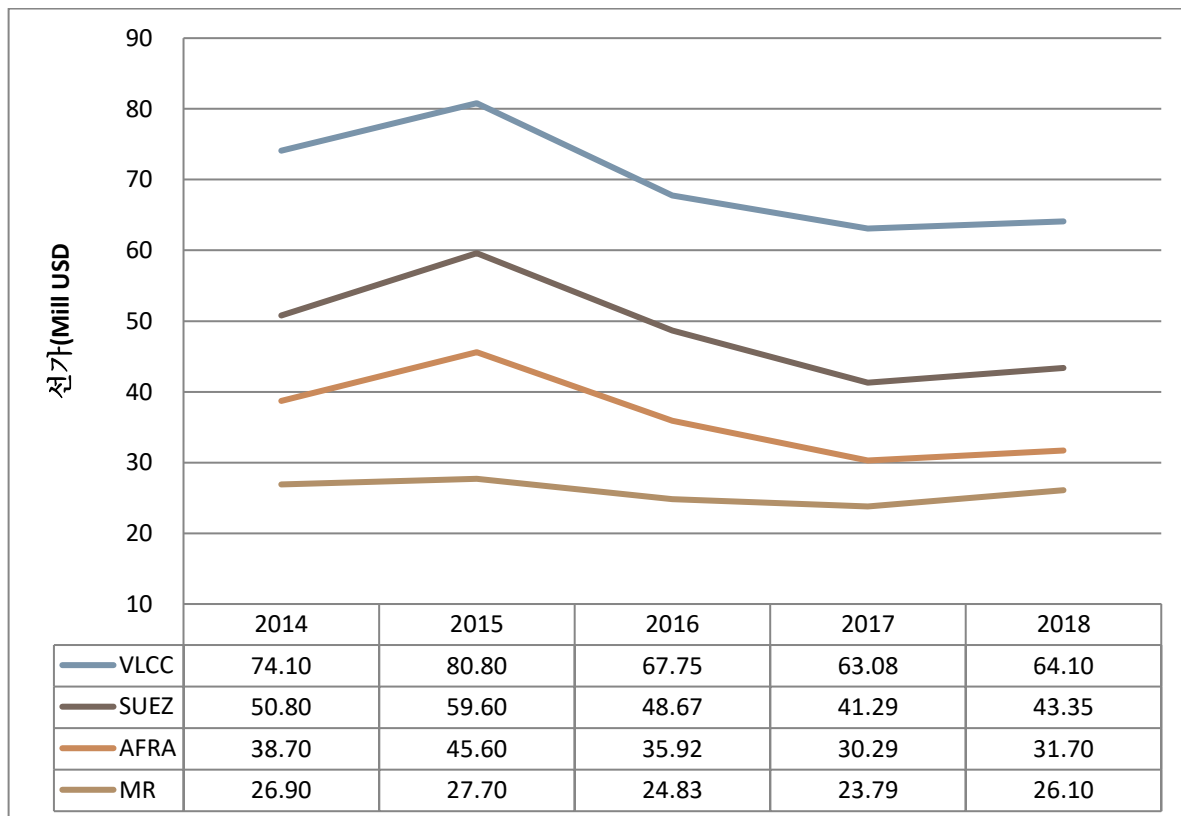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31.93%	80.80 9.04%	67.75 -16.15%	63.08 -6.89%	64.10 1.61%
Suezmax 160K	50.80 27.00%	59.60 17.32%	48.67 -18.34%	41.29 -15.15%	43.35 4.98%
Aframax 105K	38.70 33.45%	45.60 17.83%	35.92 -21.24%	30.29 -15.66%	31.70 4.65%
MR 47K	26.90 2.48%	27.70 2.97%	24.83 -10.35%	23.79 -4.19%	26.10 9.70%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8.90%	12.60 -3.08%	13.92 10.45%	12.42 -10.78%	11.95 -3.76%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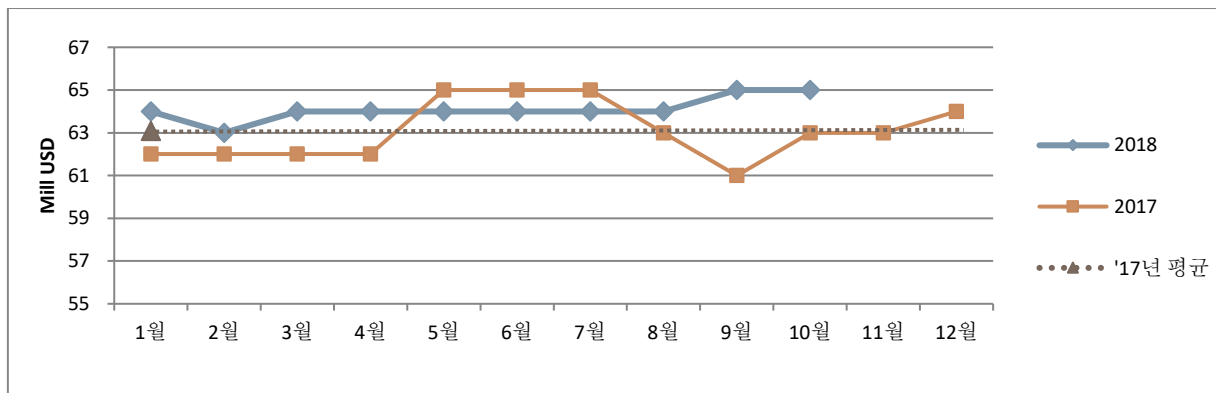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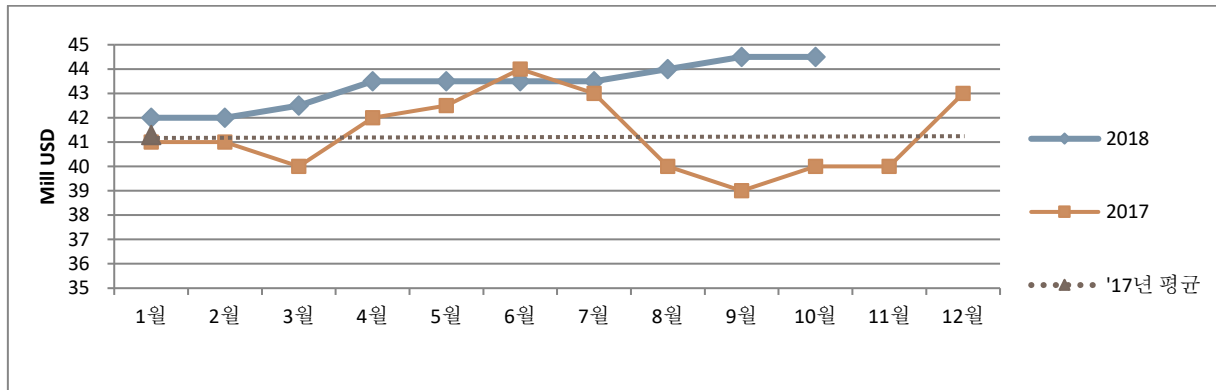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5.00			64.00
		전월대비	0.0%	-1.6%	1.6%	0.0%	0.0%	0.0%	0.0%	0.0%	1.6%	0.0%			-
		전년대비	3.2%	1.6%	3.2%	3.2%	-1.5%	-1.5%	-1.5%	1.6%	6.6%	3.2%			1.5%
	SUE 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4.50			43.22
		전월대비	-2.3%	0.0%	1.2%	2.4%	0.0%	0.0%	0.0%	1.1%	1.1%	0.0%			-
		전년대비	2.4%	2.4%	6.3%	3.6%	2.4%	-1.1%	1.2%	10.0%	14.1%	11.3%			4.7%
	AFR 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67
		전월대비	0.0%	-6.3%	3.3%	3.2%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6.7%	0.0%	8.8%	6.7%	3.2%	3.2%	3.2%	6.7%	6.7%	6.7%			4.5%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6.50	26.75	26.75	26.75	26.00	26.00	26.00			26.11
		전월대비	0.0%	0.0%	4.0%	1.9%	0.0%	0.0%	0.0%	-2.8%	0.0%	0.0%			-
		전년대비	11.1%	11.1%	15.6%	10.4%	7.0%	7.0%	11.5%	10.6%	10.6%	8.3%			9.7%
2017	CHE M IMO 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50			12.00
		전월대비	0.0%	-3.8%	0.0%	-2.0%	-4.1%	-2.1%	0.0%	0.0%	0.0%	0.0%			-
		전년대비	6.1%	4.2%	-2.0%	-2.0%	-7.8%	-8.0%	-8.0%	-9.8%	-4.2%	-4.2%			-3.4%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5.00	63.00	61.00	63.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3.00	40.00	39.00	40.00			41.29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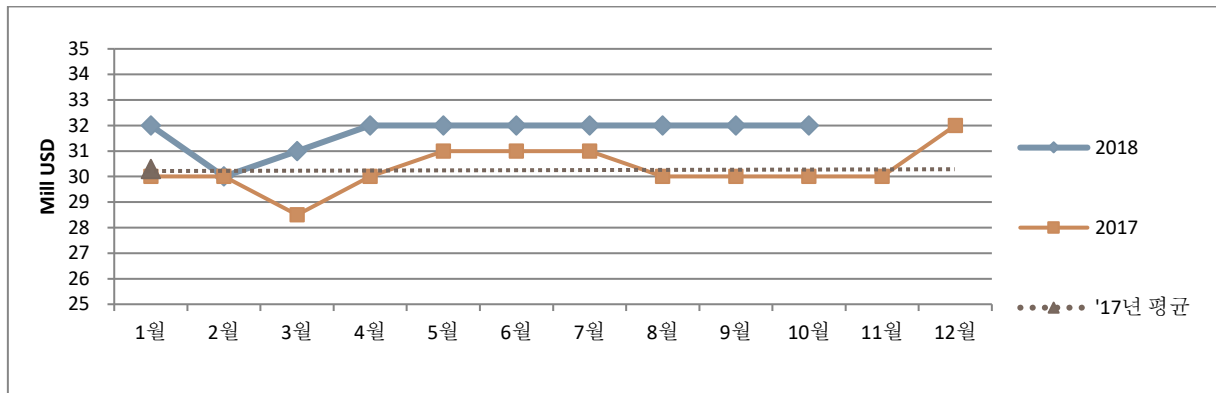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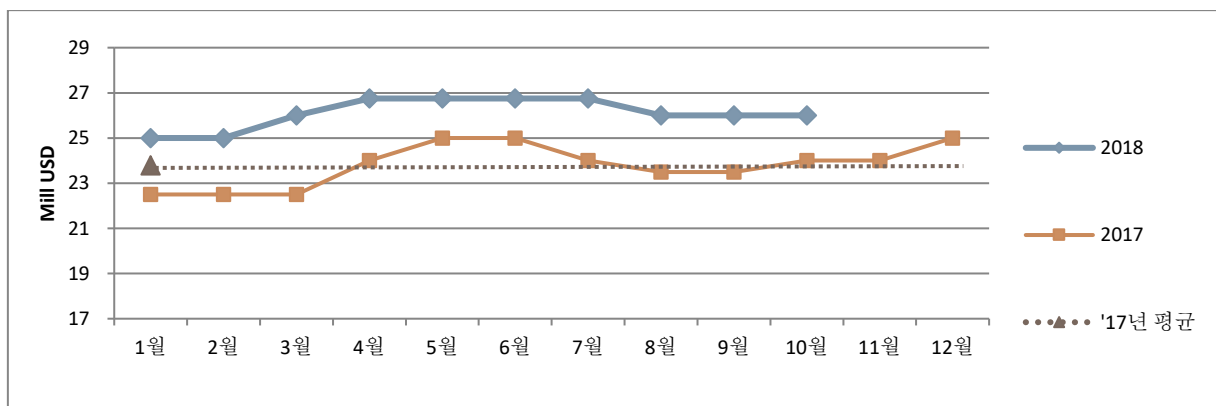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47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EAWAYS SAKURA	298,641	2001	JAPAN	B&W		18.35	Greek buyer (Hellenic Tankers)
TANKER	HYUNDAI SAMHO S877	159,000	2017	KOREA	B&W		64	Greek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HYUNDAI SAMHO S876	159,000	2017	KOREA	B&W		64	
TANKER	PERICLES G.C.	157,100	2019	CHINA			52	UK buyer (Zodiac Maritime)
TANKER	UNITED OCEANS	157,100	2018	CHINA			52	
TANKER	UNITED PARAGON	157,100	2018	CHINA			52	
TANKER	UNITED NOMAD	115,000	2018	CHINA			42	
TANKER	NIKOS KAZANTZAKIS	115,000	2018	CHINA			42	
TANKER	UNITED MARINER	115,000	2018	CHINA			42	
TANKER	AFRICAN SPIRIT	151,736	2003	JAPAN	B&W		13	Greek buyer (AVIN)
TANKER	EUROPEAN SPIRIT	151,736	2003	JAPAN	B&W		13	
TANKER	BRITISH ROBIN	113,782	2006	KOREA	B&W		108	UK buyer (Union Maritime)
TANKER	BRITISH FALCON	113,782	2006	KOREA	B&W			
TANKER	BRITISH KESTREL	113,782	2006	KOREA	B&W			
TANKER	BRITISH EAGLE	113,782	2006	KOREA	B&W			
TANKER	BRITISH CYGNET	113,782	2005	KOREA	B&W			
TANKER	BRITISH CORMORANT	113,782	2005	KOREA	B&W			
TANKER	FORMOSA FALCON	70,000	2005	JAPAN	B&W	2&3	8.5	Undisclosed buyer
TANKER	GREAT MANTA	51,833	2013	KOREA	B&W	3	27.25	Singapore buyer, SS/DD passed, BWTS fitted

III. TANKER

TANKER	TORM NECHES	47,052	2000	JAPAN	B&W		7.3-7.8	Undisclosed buyer
TANKER	PEARL EXPRESS	45,727	2004	JAPAN	B&W		9.5	Middle Eastern buyer
TANKER	BLUE MARLIN	35,969	2001	KOREA	SULZ	3	5.8	Middle Eastern buyer
OIL /CHEM	GLOBAL MERCURY (stst)	12,693	2007	JAPAN	B&W	2&3	10.25	Undisclosed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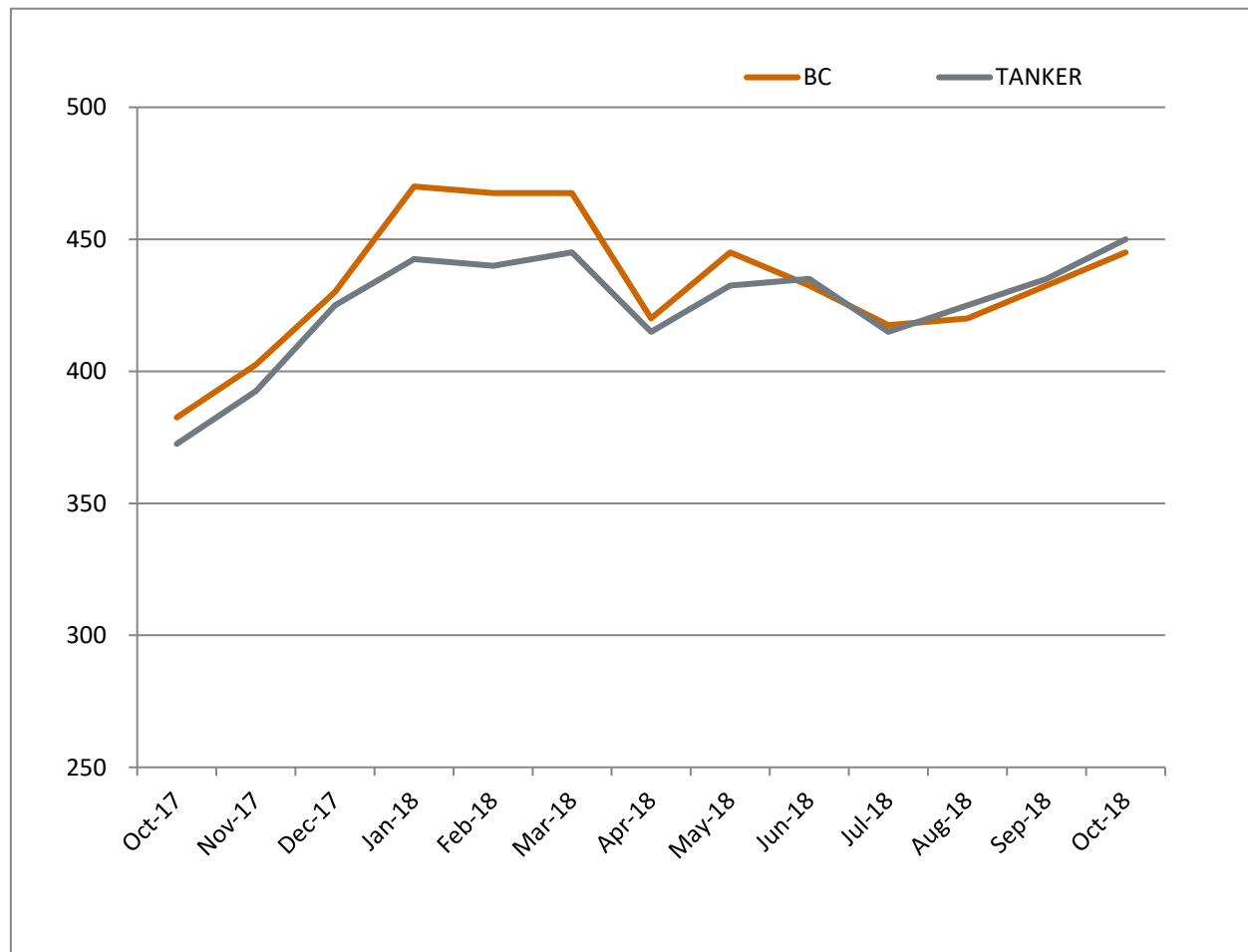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DEVON TRADER	33,899	2000	GERMAN Y	B&W	2478	TEU	6.8	Undisclosed buyer
CONT	NORFOLK TRADER	33,800	2002	ROMANIA (KOR)	SULZ	2496	TEU	7.8	German buyer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10 월	2018 년 10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33.50	18.7%	372.50	450.00	3.4%	20.8%
BC	267.71	-20.5%	370.83	38.5%	441.75	19.1%	382.50	445.00	2.9%	16.3%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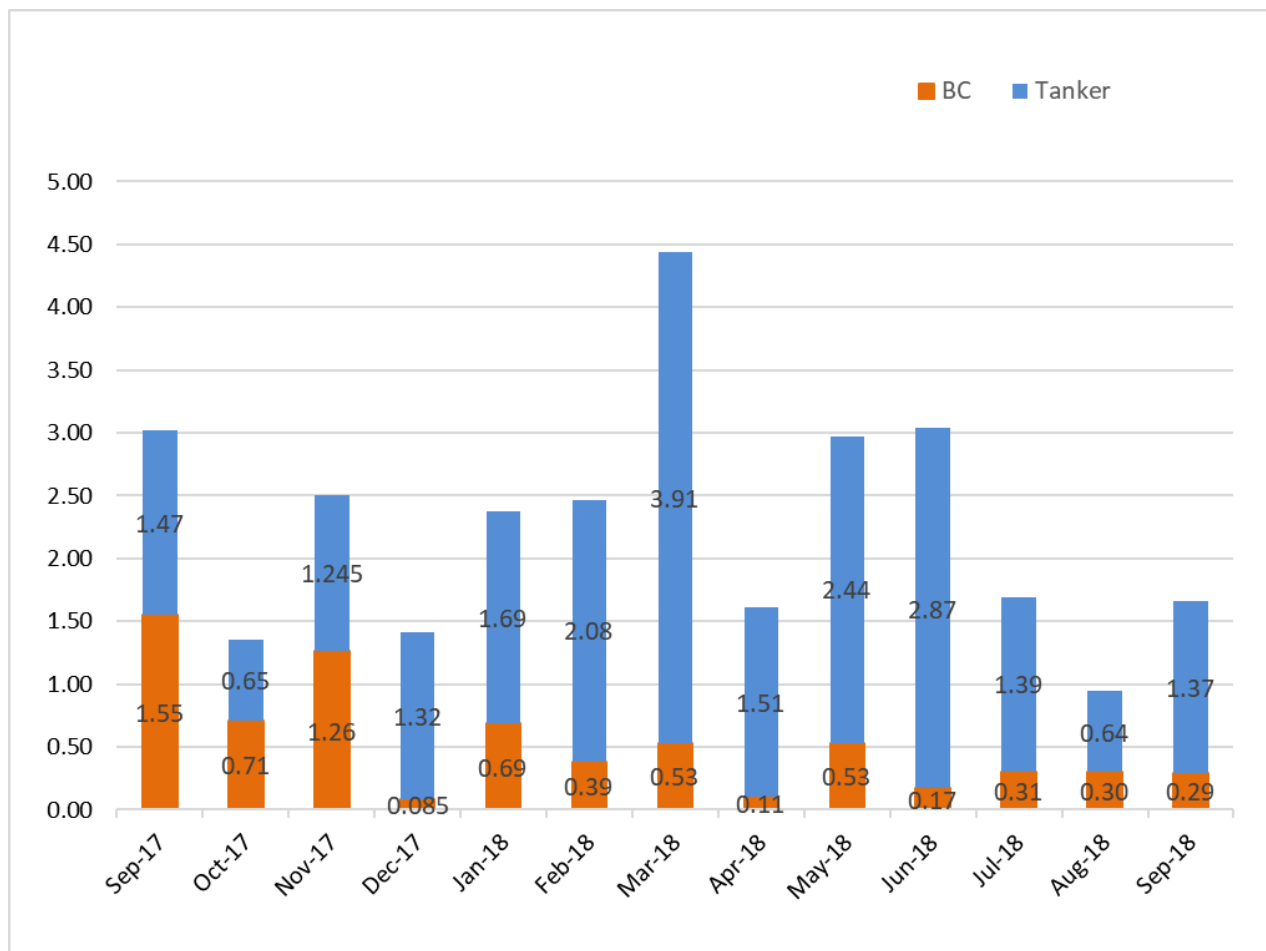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9 월		2018 년 9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17.90	156.0%	159	140.7%	1.47	9	1.37	-6.6%	15	66.7%
BC	11.74	292	3.30	28.1%	87	29.8%	1.55	25	0.29	-81.2%	9	-64.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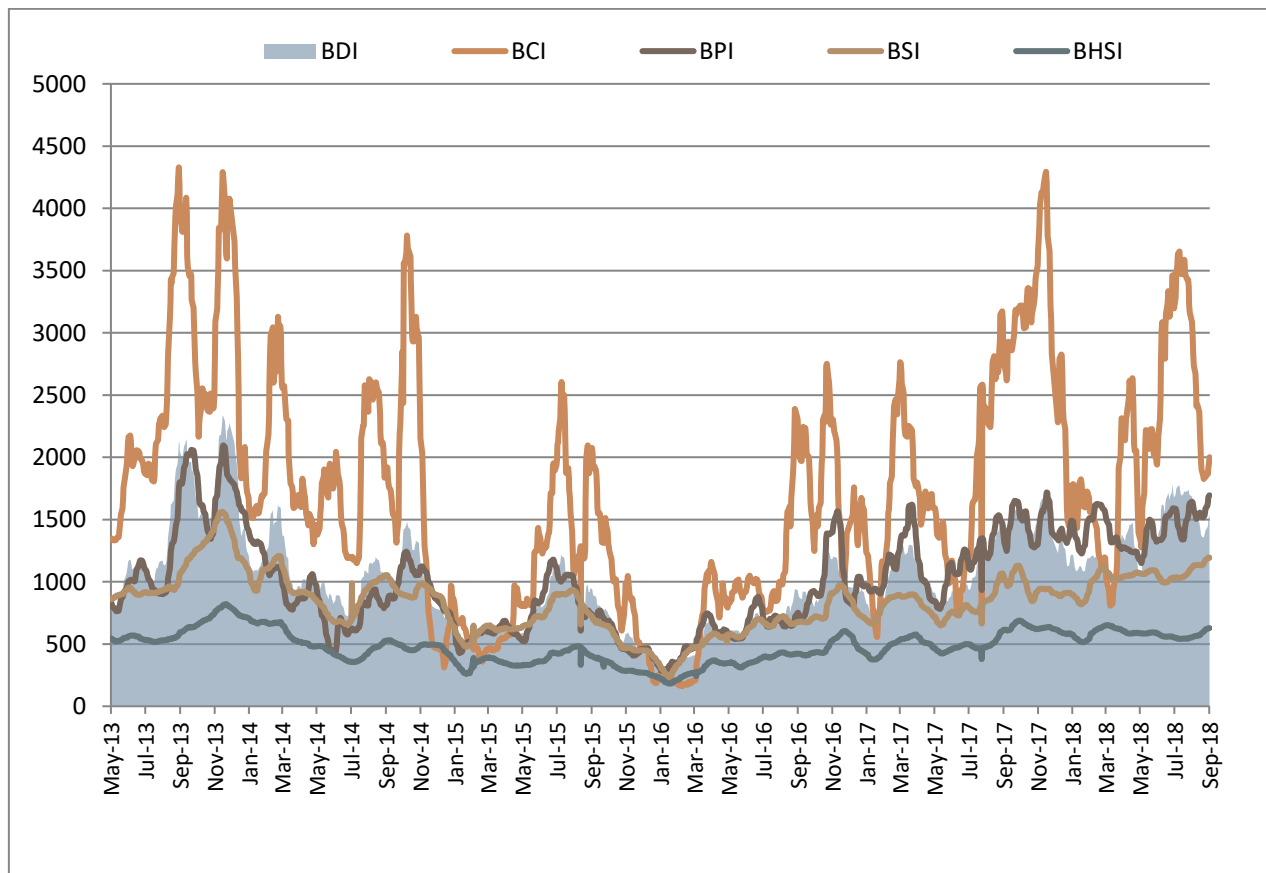
V -1.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TAMIL ANNA	45,267	10215	1985	JAPAN	B&W	360	AS IS Chennai
CONT	ARMADA SETIA	8,285	2940	1990	JAPAN	B&W	447	BANGLADESH
TANKER	NEW DISCOVERY	279,989	40453	2000	JAPAN	MITSU	445-450	AS IS Khor Fakkan, partial gas free condition
TANKER	NEW DESTINY	279,989	40453	2000			445	AS IS Fujairah
CHEM	MAIDEN ALPHA	16,924	4815	1991	MALAYSIA	MITSU	365	AS IS Belawan
LNG	ADRIATIC ENERGY	67,219	32303	1983	JAPAN	MITSU	551	Dely under tow, full sub-conti options, high nickel content
LPG	NUSA BINTANG	16,225	6903	1992	ITALY	SULZ	435	AS IS Singapore
LPG	SUNG HAE	11,816	2850	1995	KOREA	B&W	330	AS IS S. Korea
LPG	YOSU GAS	3,782	2327	1990	KOREA	MITSU	330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8-09-28	2018-09-21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540	1413	▲ 127.00	2337	290
BCI	2000	1840	▲ 160.00	4293	161
BPI	1695	1586	▲ 109.00	2096	282
BSI	1194	1175	▲ 19.00	1562	243
BHSI	629	617	▲ 12.00	821	183



V.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97.00	▲19.00	453.50	▲18.00	453.50	▲16.00
IFO180	527.50	▲20.50	494.50	▲22.00	519.50	▲18.50
MGO	736.00	▲26.50	681.00	▲23.00	737.00	▲26.00

❖ 기준일 : 9 월 28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8-09-28	2018-09-21	CHANGE
미국 달러	1112.70	1119.90	▼-7.20
일본 엔(100)	981.17	995.73	▼-14.56
유로	1294.57	1319.24	▼-24.67
중국 위안	161.78	163.36	▼-1.58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CONTACT INFORMATION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 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